



잠깐만

불량 ID와 우리의 한글 ID

pccom, enter, savin, flypig, 1111111, hllsqw, norton, oxox oxox...

언 뜻보면 무슨뜻인지 모를 이런 이름들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컴퓨터 통신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사용자이름 (D name = Identificationname)라

는 것이다. 통신에서는 자기 이름 대신에 별도로 쓰는 이름이 ID인데 이렇듯 별명이라고 볼 수 있는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측면과 아울러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사용자들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쓰인다. 통신에서 ID는 이름과 동등

하게 취급이 되는데 자료실에 자료를 등록한다든지 토론란에 자신의 의견을 게시한다든지 하는 것의 통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ID를 앞에 달고서 이루어지며 ID를 통해서 식별이 된다. 한국 PC통신의 하이텔이나 데이콤의 천리안에 들어가보면 별별 ID가 다 있다. 전혀 뜻이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ID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직업을 딴 ID, 자신이 다니는 학교이름을 딴 ID,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학번, 군번, 새이름, 꽃이름, 동물이름, 책이름, 회사이름 등등 종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ID가 있다.

재미있는 것은 숫자로 이루어져 머리나쁜 사람은 외우기도 힘든 숫자 ID가 유난히 많은데 PC 통신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에 가입할때 <사용자 번호>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번호로만 가능한줄 알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 많아서 라고 한다. ID는 통신 사용에 늘 따라다니는 것이므로 난수표(?) 같이 만드는 것보다 한단어로 되어서 쉽고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요즘 컴퓨터 통신게시판에서 보이는 ID를 보면 씩씩하게 만드는 점이 있다. 일본어로 된 ID와 욕설과 비속어가 섞인 불량 ID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연예인이나 상품명을 딴 ID로 쓰는 사람이 종종 보이고 있는데 일본풍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대들을 반영해주는 것 같아 많은 사용자들을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영어로 된 ID중에는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를 ID로 해서 쓰는데 서비스제공하는 회사측에서는 이런 불량 ID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어 항의가 있을 경우에만 적발해서 처리하고 있다. 또 국내의 컴퓨터통신 서비스 회사중에 대표적인 하이텔과 천리안을 비롯하여 포스서브(포스서브는 ID 선택권이 없이 일반적으로 부여된다), KT-MAIL에는 영어를 기반으로한 호스트 프로그램의 제약때문에 영어나 숫자로 이루어진 8자 이내에서 ID를 만들어야 하는데 한글명으로 된 ID로 만들 수 없어 예쁜 이름을 만들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요즘 한창 통신을 활용하는 어린 청소년세대들이 훌륭한 우리 한글대신 영어문자에 훨씬 친밀감을 갖게되는 모순점이 있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영문유틸리티 이름을 딴 ID를 쓰고있는데 뜻이 없이 ID에 불과해서 늘 불만이었다. 이런 문제때문에 요즘 중소기업의 사실 BBS에서는 국내개발자에 의해 개발된 한글 이름을 쓸 수 있는 훌륭한 스프로그램(컴퓨터 통신망 운영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D를 시나브로, 라든지 “애기 아빠”, “겨울아이”, “초록모자” 등 정다운 우리 이름을 쓸 수 있게하는 곳이 만하다. 어떤 사실 BBS에서는 영문으로 된 ID는 아예 쓰지 못하게 해서 우리말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도 한다.

이젠 컴퓨터 통신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때이다. 우리의 삶

을 이야기 하고 우리의 정보를 나누어 같은 우리의 통신마당에 영어 비속어나 일본 연예인 이름을 딴 아이디가 판쳐서는 안 될 일이다. 역시 우리의 것에는 한글 이름이 제격이며 영어나 숫자보다는 모양새도 좋고 훨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현재 수십만 컴퓨터 통신 이용자의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컴퓨터 통신서비스인 하이텔이나 천리안에서부터 한글별명(ID)가 가능하도록 점진적인 개선과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를수도 있으나 사실 BBS의 한글이름 쓰기 운동을 본다면 불가능한것도 아닐 것이다.

* 이 글은 컴퓨터기고가 김국현씨의 양해하에 전자신문에서 발췌, 수록한 글입니다. *